

## 2023 제13회 서울미래연극제 2차 실연 심사 총평

먼저, 그 어느 해 보다 무더웠던 올여름 서울미래연극제 실연 심사에 참여한 모든 단체 분들과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낮의 열기도 실연 심사에 참여했던 분들의 열정에 비하면 그리 뜨겁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올해 제13회 서울미래연극제 실연 심사에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총 9개 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직접 연습실을 방문하여 참관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심사는 축제가 진행될 공간인 미아리고개예술극장에서 이틀간 진행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 대해 먼저 간략히 기술하면, 팀당 심사 시간은 총 1시간으로, 준비 시간 15분, 실연 시간 20분, 인터뷰 시간 20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심사의 공정성을 준수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을 지키려 노력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한편으로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연은 각 단체에서 원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연습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 단체도 있었으며, 실제 공연화될 미아리고개예술극장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해 장면을 시연한 단체도 있었습니다. 실연 이후 이어진 인터뷰에서는 지원서와 대본 및 영상 등 기제출 자료와 실연 장면을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나 실연에서 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각 심사위원의 소견을 더하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본격적인 심사는 모든 단체의 실연이 종료된 후에 진행되었습니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발상의 예술적 실험', '한계를 규정짓지 않는 자유로운 상상력' 등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1차 서류심사와 다른 기준이 하나 더 있다면, 서류심사가 잠재적 가능성의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면, 실연 심사는 실제적 수행 가능성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바, 무대화 가능성도 함께 타진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섯 단체의 공연을 선정하였습니다. 실연 심사에 참여한 9개 단체 모두 종래의 인식을 흔들거나, 감각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선보였습시다만, 최종 선택된 다섯 작품은 이러한 주제와 형식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이뤄져, 실제 무대화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때문에 탈락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작품의 가치가 부족했다거나, 혹은 가치를 부정당했다고 자책하거나 오해하시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선정이 되었더라도, 남은 기간 작품의 가치를 더 고민하시고, 이를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등에 대해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족을 더하자면, 서울 '미래' 연극제이지만, 여기서 '미래'가 미디어 등의 진일보한 기술의 사용을 의미한다는 편견은 갖지 않으셔도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늦가을 미아리고개예술극장에서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2023년 8월 7일

심사위원 김민경, 김일송, 신윤아, 전진모, 황이선